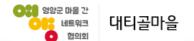


2024년 05월 01일 21시 20분

목ì°"

ë ^a ©ì°"	2
마을사진관	3
정거운 정을 듬뿍 안겨주신 조선호사장님 부부	3
첨부파일(2)	3



마을사진관

H 마을사랑방 > 마을사진관

정거운 정을 듬뿍 안겨주신 조선호사장님 부부

작성일 2011.07.21 20:49

등록자 아침햇살

조회수 2702

첨부파일(2) 예쁜 사모님.JPG 83 hit/572.4 KB DOWNLOAD

 해마루지기님.JPG 51 hit/557.6 KB DOWNLOAD





ì□·ì□□êµ°ì²(http://www.yyg.go.kr)



새소리, 물소리, 바람소리의 청아함 티없이 맑은 하늘 나뭇가지 사이로 비추는 햇살 한 줌에 담아두었던 내마음의 티끌들이 사르르 녹아내려 나도 모르게 어느새 속살을 휜히 드러내는 맑은 개<mark>울물</mark>이 되는 아름다운 대티골 꾸미지 않은 산골 소녀의 모습으로 한걸음 한걸음 외씨버선길 내딫을 때마다 세월의 무게만큼 쌓여진 욕심들을 하나, 둘 내려놓게 만드는 깨끗하고 순박한 마을 대티골! 햇살 한 줌, 바람 한 스푼 안겨들 때마다 잊고 살았던 산골 소녀의 해맑은 미소가 자연과 벗이 되는 아름다운 1박 2일 나들이길 그곳에서 만난 아름다운 부부 조선호 황토방 사장님과 사모님 두 분의 넉넉하고 훈훈한 산골 정 때문에 더 오래 아니 언제고 다시 찾고픈 대티골을 선물해 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.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 주시는 두 분 오랫만에 맛 본 우리들 옛 이웃의 모습 아니 아직도 우리들 마음을 장작불처럼 따뜻하게 데워주시는 분이 계셔 세상은 아름답구나를 느껴보았던 시간 마음 한 켠에 작은 촛불 하나 밝히는 가슴 따뜻한 날을 만들어 주셔서 돌아오는 발길 내내 행복했어요. 사장님 내외분 건강하시고 그 밝은 미소 대티골을 찾는 사람들에게 행복의 바이러스가 될거예요. 사랑합니다. 그리고 오래오래 행복하세요.

목록

Copyright © **Yeongyang-gun**. All Rights Reserved.

Yeong Yang WEB CONTENTS



